

죽으면서도 비르지니가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이니, 마지막 행동마저 자네를 위한 것이었어.”

그러면서 나는 폴에게 코코넛나무 샘가에서 그가 비르지니에게 주었던 작은 초상화를 보여주었네. 그걸 보자 그의 눈에는 참담한 기쁨이 어렸어. 폴은 무엇에 홀린 듯 허약한 손으로 그 초상화를 집어 입에 갖다 댔네. 그러자 숨막히는 고통이 그의 가슴을 짓눌러 왔고, 거지반 핏발이 선 두 눈은 차마 흘리지 못한 눈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어.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보게, 내 말을 들어보게, 나는 자네의 벗이자 비르지니의 벗이었어. 또 나는 자네가 희망을 품는 외중에도, 삶에 들이닥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끔 자네의 이성을 견고하게 다지고자 수도 없이 노력해온 사람일세.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한이 맺혀 한탄하는가? 자네의 불행 때문인가? 비르지니의 불행 때문인가?

자네의 불행을 말해볼까? 그래, 어쩌면 그건 큰 불행일지도 모르지. 자네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소녀를, 그것도 가장 훌륭한 아내가 되었을 사람을 잃었으니까. 그녀는 자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했고, 자신의 덕성에 대한 유일한 보상으로 받을 자격이 충분했던 재산보다도 자네를 더 좋아했었네. 하지만 자네는 그토록 순수한 행복을 기대했음에 틀림없는 대상이, 자네에게 끝도 없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고 있나?